

여주시, 여수 섬 여행 환급·관광 지원사업 연계

행안부 지원부터 반값여행·섬섬패스까지 관광 혜택 제공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섬 방문의 해' 여행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여수 섬 관광 홍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7~8월 중 비연륙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여름철 섬 관광 수요를 높여 금오도, 안도, 연도, 개도, 하화도 등 아름다운 다도해를 보유한 여수는 다양한 섬 관광 콘텐츠와 함께 여행객 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29일부터는 '여수

섬 반값여행'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이 여수 섬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수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체 관광 플랫폼과 연계한 '섬섬패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섬 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과 여주시 관광 지원사업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아름다운 여수의 섬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섬 방문의 해' 여행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섬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7~8월 비연륙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숙박비, 식

비, 여객선 운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시는 금오도, 안도, 연도, 개도, 하화도 등 다도해 섬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섬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29일부터는 '여수 섬 반값여행'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타 지역 관광객이 여수 섬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여수시는 자체 관광 플랫폼 '섬섬패스'를 통해 섬 여행 정보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여수 하화도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몰랑이' 유희지 작가 초청 창업특강 개최

순천시는 오는 26일 순천시청년센터 문화공연장에서 인기 캐릭터 '몰랑이'의 원작자 유희지 작가를 초청해 '2026년 제1회 순천시 창업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가 새로운 창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캐릭터 IP시대, 콘텐츠가 브랜드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유희지 작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 IP 창작자로, 이번 특강에서 '몰랑이' 캐릭터 탄생부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까지의 경험과 콘텐츠 기반 창업 전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70명으로, 신청은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유빈 기자

광양청년꿈터-광양5일시장 문광형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광양청년꿈터(센터장 배혜금)는 지난 17일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사업단(단장 장세은)과 지역 청년의 창업·문화 활동 기회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광양청년&5일시장 팝업마켓」을 공동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예 및 DIY(수공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광양5일시장 플라마켓에서 강사와 셀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주말 장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공예

체험 클래스로 운영된다. 오는 7월 26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되며, 이에 앞서 6월 중순부터 참여 청년 강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강사비와 재료비가 전액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시장 내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은 광양5일시장 문화관광형사업단(단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더해져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광양청년꿈터와 협력해 청년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5일시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형 체험 전통시장 조성을 목표로 2개년 문화관광형사업단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한울고 재학생 대상 정신건강 교육 실시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한울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정서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윤현주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감정의 이해와 표현 ▲청소년기 뇌 발달과 감정조절 ▲우울 및 불안의 이해 ▲건강한 경계 설정과 대인관계 ▲회복탄력성 향상 및 자기돌봄 방법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틀린 감정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청소년기 정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함께 나누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감정과 정신건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과 상담,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061-363-9917) 또는 홈페이지(www.gsgmind.or.kr)로 가능하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생명지킴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민·관 협력 '견수다' 캠페인 본격 추진

구례군은 지난 17일 「함께 지키는 생명, 수요일엔 견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구례군보건의료원이 새근산사람들과 생명사랑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의식지표인 '견기 실천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형 자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견기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을 생명지킴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견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지킴 서포터즈 역할 안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예방 인식개선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다. 생명지킴 서포터즈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견기 활동을 매개로 지역주민 간 소통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앞장서며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SNS 활용 생명사랑 홍보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견기라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해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